

레슬리 알렌 박사, 에스겔, 16강,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 에스겔 34:1-31

© 2024 레슬리 앨런과 테드 힐데브란트

에스겔서를 가르칠 때 레슬리 알렌 박사(Dr. Leslie Allen)입니다. 16회,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 에스겔 34장 1-31절입니다.

이번에는 에스겔서 34장에 이르렀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지금이 에스겔서의 다섯 번째 부분에 있다는 것을 언급했어야 했습니다. 이 부분은 33장에서 시작하여 33장 끝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37장.

이 장은 공통된 은유, 즉 양과 목자의 은유를 공유하는 일련의 메시지를 그룹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스겔이 확장된 은유의 대가라는 것을 보았으며, 이 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다양한 각도에서 관점을 탐구하는 확장된 은유의 여러 예를 읽었습니다.

에스겔서의 이러한 특징은 여기에 다시 나타나지만 단일 메시지가 아니라 세 메시지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세 가지 메시지는 1절부터 16절, 17절부터 22절, 23절부터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23절과 24절, 25절부터 30절, 31절의 은유를 발전시키는 세 가지 보충 자료의 모음입니다.

에스겔은 때때로 이전의 예언 본문을 떠올리며 그 내용을 확장합니다. 이 경우, 그는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알고 있는 본문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레미야서 23장 1절과 2절을 생각합니다. 내 목장의 양들을 멸하고 흠는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의 목자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 떼를 흠어 버리고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악행을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그것은 특히 1절부터 17절까지의 이 후기 예언 메시지의 성경적 근거인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과 2절은 유다 포로 이전의 마지막 왕들에 초점을 맞추고 이스라엘 왕권이라는 전통적인 이상을 유지하지 못한 그들의 실패에 대해서 도전하는 메시지 모음의 거의 끝 부분에 나옵니다. 그 모음집은 예레미야 21:11부터 23:8까지 걸쳐 있습니다. 개별 왕들이 먼저 비판을 받고, 그 다음 23:1-2에는 최근의 왕권에 대한 요약적인 일반 검토가 있는데, 이는 왕들이 가난한 목자로서 자기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게 함으로써 양 떼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기원전 597년과 587년.

유다 백성들에게 이 모든 일을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바로 제국의 권력에 반역하는 왕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마지막 왕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절과 2절은 3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배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절부터 16절까지의 이 구절들은 587년 이후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구원의 메시지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후반전은 7~16.

1절부터 16절까지는 전체적으로 587년 이후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머리이신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의 아랫목자들이었던 목자들의 부족함을 어떻게 고치실 것인지를 말함으로써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양떼를 돌보는 일을 맡을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 왕들에 대한 수사적 언급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우주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이제 오래 전에 사라진 사람들에게 수사학적 연설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극적인 방법이 있지만, 물론 이 메시지의 실제 수신자는 597과 587의 일반 유배자들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2절까지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인간 목자 왕들이 만들어낸 위태로운 지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1~2절처럼 심판의 메시지만 1~6절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목자들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나 목자가 양 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기름을 먹고 양털로 옷을 입으며 살찐 새끼를 잡으나 양에게는 먹이를 주지 아니하는도다 주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셨으며 상한 자를 싸매지 아니하셨으며 길 잃은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시고 강포와 강압으로 그들을 다스렸나이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내 양들은 흩어졌고 모든 산과 높은 언덕을 헤매었습니다. 내 양들은 온 땅에 흩어졌으나 찾아보는 사람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었다. 포로 이전의 마지막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의 파괴적인 수사적 신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심판의 메시지에서 묘사하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왕들을 언급하는 수사학적 방식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예레미야 23장에서 이어졌습니다. 비록 그들의 통치가 지금은 과거에 속하지만 이 수사적 특징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양에 대한 은유를 가지고 있으며 구약성경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적용이 있습니다. 인간 왕은 자신의 백성을 책임지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러한 용법은 왕을 목자로 여기는 고대 근동 전역의 관행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구약성서에서 두 번째이자 더 일반적인 사용법은 목양을 이스라엘과 그들의 하나님 사이의 언약 관계에 대한 신학적 은유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에는 이에 대한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시편은 특히 이 두 번째 용법을 입증합니다.

시편 80편과 1절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언급합니다. 그리고 시편 100편과 3절은 우리가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목자와 양의 비유를 개별화하고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양 떼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예레미야 23장과 1절을 되돌아보면 이 두 가지 은유적 적용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내 목장의 양 떼를 멀하고 흩어지게 하는 목자들, 왕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예레미야서 23장 1절에는 이미 정치적인 용법과 신학적 용법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10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1절에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에 대해 말하고 6절, 7절, 10절에서는 내 양에 대해 더 자주 말합니다. 유다의 왕들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예정이었지만,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종속되고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목양 비유의 정치적, 신학적 적용이라는 두 가지 적용 사이의 발전이자 조정입니다.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의 메시지는 모두 유대 왕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의 통치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그들은 그들의 통치가 결국 597년과 587년의 추방으로 이어진다고 비난했습니다. 게다가, 두 왕 모두 그들의 백성을 착취했다고 주장됩니다. 양치기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젖을 먹고 양털을 가져갔습니다.

나는 NIV의 3절에서 번역된 응유를 가져왔습니다. 새로운 RSV에서는 너희가 기름을 먹고, 양털로 옷을 입고, 살진 것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똥똥하다는 해석에는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버터로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을 얻는 것은 동물을 먼저 도살하는 데 달려 있고 그것은 이 순서의 뒷부분, 즉 버터 먹기, 양털로 옷 입기, 살진 새끼를 잡아서 기름 얻기의 순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방을 얻기 위한 도살은 그 순서의 뒷부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우유를 취하여 응유를 만드는 것과 양털을 취하는 것은 물론 그 자체로는 반대할 수 없지만, 취하는 것은 주는 일을 수반하지 않으며 양치는 역할에는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요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권리와 책임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에게 먹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간 무리를 적절하게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학살은 왕들이 시민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죽음을 허용했다고 비난합니다.

왕들은 4절에서 강력하고 가혹하게 통치하기 때문에 독재자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순수한 독재자이며, 그들의 목자 통치에서는 오직 자신들의 관심사와 원하는 것만 고려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양이라고 통렬하게 부르셨던 양들이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왕들의 형편없는 통치로 인해 추방과 피난 중에 길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7절부터 10절까지는 고발에서 형벌에 대한 진술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그 신호를 말해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고발이 끝나면 처벌이 따른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으라. 내 양은 먹이가 되었으며 목자가 없으므로 내 양은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나의 목자들은 내 양을 찾지 아니하였느니라. 목자들이 자기만 먹이고 내 양 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노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손에 요구하여 그들이 양 떼를 먹이는 것을 그치게 하리라. 목자들은 더 이상 스스로 먹이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내 양을 그 입에서 구원하여 그들의 먹이가 되지 않게 하리라. 사실, 우리는 7절에서 그 판결을 발표한 후에 그 비난을 요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그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7절, 9절에서도 목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이것이 반복되는 이유는 이제 실제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포로 이전 두뇌를 비난하고 잘못된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수사적 방법이며 결국 포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난을 받는 왕들이 있습니다.

책에 나오는 두 가지 죄는 왕에게 귀속되지만, 근본적으로는 공동체 전체의 죄입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장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은 왕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들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왕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왕실 직위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모두 비유적이고 수사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죽었고 지금은 사라졌지만 과거 통치에 대한 극적인 비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포로 이전 군주제의 종말은 양치기 왕들의 엄청난 무능에 대한 필요한 보복으로 해석됩니다.

이제 2절에서 10절까지는 우리가 11절에서 16절로 넘어가는 전체 메시지의 실제 요점에 대한 장면을 설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 역사를 다시 지적하고 반복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유배되고 있는 유배자들의 현재 상황과 상황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군주제의 옛 책임을 대신하실 것이며 나의 양들을 돌보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11절, 나 자신이 내 양을 찾으리라.

나는 그들을 찾아볼 것이다. 12절, 내가 내 양을 찾으리라. 내가 그들을 구출할 것이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한 번 나옵니다. 나중에 15절에서는 내가 내 양들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늙게 할 것입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인간 왕의 관점에서 목자라는 단어의 정치적 사용을 버리고 그 신학적 사용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은 군주제가 없었으니 당연히 신학적인 용도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목자 왕들이 가졌던 옛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책임지실 때 그들은 나의 양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이심을 격려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염려하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언약 관계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 표현은 나의 양입니다. 그러므로 유배자들은 왕 정부의

희생자들이었으며 이제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의 복지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그들의 고향 목초지로 데려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땅으로 돌아가라는 에스겔의 새롭고 중요한 긍정적인 메시지에 대한 은유적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축복은 풍부한 목초지와 누울 수 있을 만큼 안정감을 느끼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13절,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산 위 시냇가와 그 땅 모든 거민에게 먹이리니 14절, 내가 그들에게 좋은 꿀을 먹이리니 이스라엘의 높은 산이 그들의 꿀이 되리라. 거기서 그들은 좋은 풀밭에 누울 것이며, 이스라엘 산에서 기름진 풀을 먹으리라.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 매력적인 설명은 모두 목자의 이미지를 던져줍니다. 양 떼를 돌보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선한 목자가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절에 묘사된 인간 왕들의 무책임함을 되돌리실 것입니다. 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4절, 너희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데려오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오직 강압과 강압과 엄함으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이제 16절을 보십시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흩어진 자를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하여 우리가 거기서 공의로 그들을 먹이리라. 그리고 단계별로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들이 하지 않은 일을 그들의 목자가 하게 될 것입니다.

16절에 이르면 사실상 4절의 거울 이미지가 있습니다. 12절에는 흥미로운 언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절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다의 종말을 되돌아보지만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름과 캄캄한 날에 내가 그들을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구출하리라.

이것은 주의 날에 대한 언급이다. 그리고 특히 7장에서 우리는 주님의 날에 대한 불길한 사용, 즉 이전 선지자들에게서 언약 백성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의 다가오는 개입을 언급하는 예언적 어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나간 일이요, 이제는 지나간 일이요, 구름과 짙은 어둠이 유배로 이어지던 그 날입니다. 끔찍한 시간이었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주님의 날이 왔다가 갔습니다.

그 문구는 아모스 이후의 표준 문구였으며 587년을 내다보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지나갔습니다. 다른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에스겔 자신도 포로 생활을 내다보면서 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왕권의 이상 중 하나는 정의였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내가 살찐 것과 강한 것을 멸하며 공의와 공의로 양 떼를 먹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이 군주제 기간 동안 기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군주제의 오래된 이상인 정의, 정의와 의로움을 거의 발견하지 못했고 이러한 이상이 그들의 경험에서 실현되는 것을 거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의 목양은 공의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양 주제를 전개하는 새로운 메시지가 있는데,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살찐 자와 강한 자를 반대하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이 새로운 메시지가 17장에서 22장까지 말하는 내용에 대한 일종의 도입부입니다.

내 양 떼인 너희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사로잡힌 자들에게 직접 말하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염소 사이를 심판하리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남은 꼴을 발로 밟아야 하겠느냐? 네가 맑은 물을 마실 때에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히느냐? 그리고 내 양이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고,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도록 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배불리 먹은 자와 배부르게 먹지 못한

자를 내가 친히 심판하리라. 네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고 모든 악한 짐승을 뿔로 쳐서 멀리 흠었으니 내가 내 양 떼를 구원하여 다시는 해를 입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자, 익숙한가요? 우리는 작은 j를 가지고 판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유배자들 중에는 제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으며, 추방 옵션을 고려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그 즐거운 시간의 일부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고, 포로들 사이에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망명자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파이가 아니고 과거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심판의 메시지와 구원의 비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로서 선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 좋은 일이 다른 유배자들의 희생자를 구출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17절부터 22절까지의 이 메시지에서 전면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16절의 살찐 것과 강한 것에 대한 언급은 이 새로운 메시지가 말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인도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희생자로 착취하는 무책임하고 유배자들 사이에서 주도적인 구성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미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땅의 삶이 어떨지에 대한 놀라운 설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목양 역할이 그분을 인도하여 사람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치는 역할을 하면서 그는 희생된 사람들에 대해 뭔가를 해야 하고, 그들을 희생자로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 뭔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은 나쁜 양, 즉 마른 양을 희생양으로 삼는 살찐 양입니다.

그래서 양을 판단하는 일이 처음과 끝에서 언급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그리고 22절 마지막에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포로들을 보셨을 때 균질한 덩어리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두 그룹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악인, 악한 착취자, 착취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상황에 대해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유배 기간 동안에도 그가 맡게 될 목양 역할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메시지는 망명자들에게 있는 책임이고, 망명자들에게 있는 의무이며, 지금도 그들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은 유배자들 사이에서 사회적 착취가 있었는데, 그것은 살찐 양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한 자들을 목초지 밖으로 밀어내고, 그들이 마신 후에는 식수를 진흙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마시는 것을 오히려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포로 생활의 일반적인 문제를 처리하고 미래를 위해 그것을 바꾸어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뿐 아니라, 포로 기간 동안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여기까지 퍼져서 원인이 되는 모순과 불평등을 섭리적으로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망명자들에게는 추가적인 고통이 따른다. 그리고 이것은 유배 공동체 내부의 문제입니다.

유배자들 중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했고, 그들이 이제 외부인이 되었다는 것은 아이러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 맞서는 것은 희생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양 떼, 내 양 떼, 나는 악당들로부터 내 양 떼를 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두 유배자들이고, 이제 그들은 모두 내 양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거친 행동으로 내 무리에서 스스로를 추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 떼가 희생양이 됩니다. 망명자들 가운데 이러한 무책임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리고 23-31장은 세 가지 보충 메시지로 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11절부터 16절까지에 나오는 고국 회복의 약속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토지로의 복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보충은 23과 24에 있습니다.

내가 한 목자 곧 내 종 다윗을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라. 그분은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실 것이다. 그리고 나 여호와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왕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와 그것들을 말하였느니라.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 구절들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적절한 위치, 즉 그들이 기대했던 위치는 뒷부분에 있었습니다. 37장 24절과 25절입니다.

나는 그것들을 읽고 그것이 얼마나 가까운지 볼 것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모두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내 규례를 따르며 내 율례를 삼가 지키리라. 그리고 25년 말에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읽고 있는 내용과 매우 가깝습니다.

37장의 한 목자 문맥에서 우리는 정치적인 용도로 돌아가지만 이제는 신학적인 용도의 하위 구분이 됩니다. 이 사람은 신성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자신의 선한 아랫목자입니다. 실제로 군주제의 복원이 있을 것입니다.

37장의 문맥에서 한 목자는 남북의 재결합을 언급합니다. 더 이상 포로 이전 시대처럼 두 왕국, 즉 이스라엘 왕국, 유다 왕국, 북쪽 왕국, 남쪽 왕국이 아니라 한 목자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맥락에서는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이 한 목자는 우리가 20절부터 21절까지 읽은 불일치, 즉 나쁜 지도력으로 인한 불일치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을 다스리는 한 목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의 역할은 약속의 땅에서 양 떼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솔로몬의 분열되지 않은 군주제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7절에서 22절에 표현된 공동체에서 발생한 분열의 맥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일치의 문제를 결국 매우 철저하게 처리할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단일 권한을 갖고 사회 통합을 보장할 것입니다.

내 종 다윗은 다윗을 두 번이나 언급하며, 그 왕조의 옛 전통, 다윗 왕조가 지켜질 것입니다. 고대 남부 왕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왕권은 다윗 왕조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나쁜 왕들은 모두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윗 왕조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좋은 왕이 될 것이라는 어떤 보장이 있었습니까? 글썄, 다윗은 또 다른 표현인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으로 자격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 번 읽었습니다. 유배되기 전의 그 왕들은 어디에도 자신을 종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은 혼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정의를 포함하여 그들의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으로부터도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일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내 종 다윗이여.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것은 정치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제국의 대군주가 있을 때 그의 밑에 많은 나라가 있었고 그들 중 아주 많은 나라가 그들 자신의 왕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속국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신이라는 단어는 주라는 단어였고, 하인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대주로서 그들을 다스리는 군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종이거나 그의 신하, 속국의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인간 왕은 순종하는 속국의 왕으로 표현됩니다. 그는 순종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는 준수할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전 장에서 시드기야와 함께 그 요소를 다루어야 했습니다. 그는 순종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종 다윗아, 나는 대주가 될 것이고 그는 내 신하로서 나에게 복종하는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왕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좋은 군주제가 될 것입니다. 24절에서 그 설명을 마무리하면 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물론, 우리는 그것이 언약 공식의 절반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이번에는 아랫 목자들의 통치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언약 관계와 양립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다윗의 통치에 관해 사무엘하가 한때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그 내용은 사무엘하 5장에 있는데 사무엘하 5장 12절과 아주 잘 일치합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고, 여호와를 위하여 자기 나라를 높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백성 이스라엘.

그것을주의해라? 주님, 그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다윗의 왕국을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정치적 왕국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 관계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절의 메아리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공의와 공의를 세운 선한 왕으로 여겨졌으니 여기에서도 그러할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왕이 될 것이며 그의 통치를 통해 내 언약을 이행할 것이다. 이제 23절과 24절의 이 보충 자료는 일부 선지자, 특히 이사야와 미가에게서 발견되는 이전의 예언적 약속, 즉 회복된 군주제의 회복된 예언 전통의 전통과 옛 이상에 부응하는 전통을 지지합니다. 군주제에 대해 설명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군주제가 어떤 것인지 표현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 선지자들은 왕정의 시작과 관련된 전통에 의지하고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가문이 영원한 왕조를 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89편은 유다에 대한 적의 공격으로 인해 그 약속이 위협받는 것을 한탄했지만, 여기 포로 생활 환경에서 옛 약속이 갱신되었습니다. 실패한 군주제의 종말은 원칙적으로 다윗 왕조의 종말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이 마지막 절에 두 번째 보충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25절에서 30절로 이동하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들짐승을 땅에서 쫓아내리니 그들이 땅과 들에 거하며 숲에서 평안히 자리라. 내가 그들과 내 산 주변 지역을 축복할 것이다. 내가 때를 따라 소나기를 내리리니, 그것이 축복의 소나기일 것이다.

들의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그 산물을 내리라. 내가 그들의 멍에 빗장을 꺾고 그들을 종들의 손에서 구원할 때에 그들이 자기 땅에서 안전하게 살며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은 더 이상 이방 사람들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땅의 짐승들이 그들을 잡아먹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안전하게 살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아름다운 초목을 주어 그들이 다시는 이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게 하며 다시는 이방인의 수욕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과 그들과 함께 있는 것과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양이요, 내 초장의 양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사실 우리는 31장으로 넘어갔지만 다음 보충 내용은 실제로 25장부터 30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는 일은 전반부 인용에서 언약 관계에 대해 암묵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언약 관계가 무엇을 의미할지에 대한 철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거기에는 땅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누리도록 의도하신 구원의 성취를 보여주는 낙원의 목가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핵심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RSV는 우리를 약간 실망시키지만 25절에는 '확실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25절에서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다시 그들이 자기 땅에서 안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에 보면 그들은 안전하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과 나 사이에는 안전하고 안전하게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안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유배 기간은 불안, 노숙자로서의 불안, 모든 것을 잃은 것에 대한 불안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그와는 반대로, 안전하다는 위로의 말이 있습니다. 고국을 침략하고, 수도를 정복하고, 추방당하고, 그 긴 여행을 한 사람들에게 그런 말이 얼마나 위안을 가져다 줄지 너무나 안심입니다. 유다에서 바빌로니아까지.

그들은 국가의 독립을 잃었고, 다른 나라 앞에서 체면을 잃었으며, 외국인들에게 약탈당한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도 나옵니다. 28절과 29절에서는 그들이 더 이상 열방의 노락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20절은 28절이고, 29절에서는 그들이 더 이상 열방의 모욕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나쁜 일, 이러한 걱정스러운 일의 끝이 있으며 이것이 이 키워드를 강화하고 해당 키워드 보안을 지원하고 발전시킵니다.

은 실제로 레위기 26장의 메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에서 내가 그들의 멍에 빗장을 꺾고 여기 27절에서 그들을 종으로 삼는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고 말합니다. 음, 이것은 제사장 선지자가 말한 것이었고, 레위기 26장과 13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언약의 축복의 일부였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더 이상 그들의 노예는 아닙니다. 내가 네 멍에 빗장을 꺾고 너를 똑바로 걷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것은 출애굽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크게 걸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깨뜨린 그들의 멍에 빗장, 즉 애굽에서의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두 번째

출애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을 다룬 이전 자료를 기억하시나요? 글썸, 그것은 여기를 지나가면서 포착되었으며, 내가 그들의 멍에의 빗장을 꺾을 때, 물론, 새로운 이집트인 바벨론이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출애굽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바벨론 탈출과 포로생활의 종말에 적절하게 적용됩니다. 글썸, 우리는 24절에서 언약 공식의 전반부가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우리는 그 절반만을 얻습니다. 그러나 사실 완전한 언약의 공식은 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나의 백성이라는 양면적이다.

공식의 후반부는 30절에 훌륭하게 등장합니다.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은 내 백성이니 그것을 알리라.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 이에 대한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의 이상, 마침내 그것이 실현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이자 마지막 보충과 요약이 31절에 요약으로 나옵니다. 너희는 내 양, 내 목장의 양,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리고 일어나는 일은 언약 관계를 완전한 이중 형태로 다시 기술하지만, 언약 관계에 대한 해당 장의 은유적, 문자적 언급을 함께 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전에는 언약 관계가 결국 양, 즉 내 목장의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내 양, 내 목장의 양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23절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처음에는 은유적인 방식으로 결합되었고, 그 다음에는 언약 공식의 두 부분이 평범한 방식으로 결합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장의 앞 부분에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언약의 은유를 훌륭하게 되돌아보게 합니다.

자, 이제 34장을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사용된 언어와 신약성경의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사명은 유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언어를 사용하셨는데, 에스겔 34장에서 따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요한복음 10장과 1절부터 18절까지, 그 부분이 특히 마음에 떠오릅니다. 그 부분에는 양과 목자에 대한 예수님의 확장된 비유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그것은 에스겔 34장에서 따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것은 에스겔 34장이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이 있고 실현되었다고 말하고 주장하는 내용을 적용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니라. 그래서 좋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를 좋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과 그의 양 떼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아버지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양 떼 사이에는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아버지 사이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 아버지의 명령을 행하십니다.

18절, 내가 이 계명을 내 아버지께 받았노라. 그래서 그는 거기 있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것이 에스겔의 하나님과 인간 왕과 그의 대리자의 이중 관계입니다. 지금은 에스겔 34장 2절부터 10장까지의 불순종한 인간 왕들이 아니라 34장 23장의 순종하는 목자 왕이 지금 전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어를 말하는 것은 요한복음뿐 아니라 누가복음 19장에서도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그것 역시 에스겔 34장에서 직접 가져온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34장과 16절에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반영합니다.

그게 뭐라고 말했어? 나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곤은 자들을 되찾을 것이다. 나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곤은 자들을 되찾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에 의해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34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메아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46절에 나오는 심판의 비유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분리하실 것입니다.

이 심판 때에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을 분리할 것이다. 사람들은 서로입니다. 목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둘 다에게 다른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에스겔 34장, 특히 17절의 요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양과 양 사이, 숫양과 염소 사이를 심판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예수님은 아버지의 신성한 목자의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신성한 기능의 대리인, 이번에는 심판의 기능을 담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되는지에 대한 귀중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참고 자료는 마태복음 18장과 병행 부분인 누가복음 15장의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목자와 양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생각의 궁극적인 출처는 에스겔 34장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35장 1절부터 36장 15절까지 35장과 36장 두 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 에스겔 34장 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를 가르칠 때 레슬리 알렌 박사(Dr. Leslie Allen)입니다. 16회,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 에스겔 34장 1-31절입니다.